經營人의 發言

三養食品工業 全仲潤 社長 肉類·酪農製品을

肉類파동이 빚어질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쇠고기 값이 뛰고 품귀소동이 일때면 예외없이 가격안정을 겨냥한 공급확대 방안과 畜産振興시책이 발표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파동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앞으로도 계속 쇠고기는 輸入해야만 하는가

축산진흥정책은 肉類와 酪農제품을 主食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정책 발상의 일대 전환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主穀自給시책과 같은 장기적 안목의 정책지원이 따른다면 우리는 선진국 못지않은 훌륭한 酪農國으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7년간 축산경영에서 얻은 확신이다.

우리나라 山地 가운데 경사 40도 미만의 땅은 草地로 개발, 牧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2백만정보에 달하니까 자원은 무한한 셈이다.

우리 三養食品이 라면원료 自給을 위해 지난 71년에 개발한 大關嶺 목장도 표고 8백~1천 4백m 의高地인데는 경사가 40도에 가까와 전문가들도 草地 조성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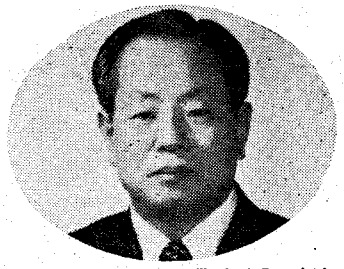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草地는 1천 6백정보, 젖소와 肥肉 牛를 합쳐 2천 8백마리 규모의 훌륭한 목축장으로 자랐고 매달 1백마리씩 잡아 라면원료로 쓰고 있다. 문제는 정책여하에 달려 있다.

韓牛집착 버리고 牛種 改良부터

축산정책의 1차적 과제는 韓牛에의 집착을 떨쳐버리고 종자를 과감히 개량하는 일이다. 韓牛入殖은 경제성이 없어 증식효과가 적을 뿐아니라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도 않는다. EC 지역에서 권장하는 심멘탈 種의 경우 1년 10개월만 키우면 4백kg이 되지만 韓牛는 3년을 키워도 안된다. 지금까지 대관령목장에 22억원을 투입했는데도 내년에 가서야 겨우 채산을 맞출 수 있게 된것도 경험이 없었던 초기 3년간 경제성없는 韓牛를 키운 것이 주된 원인이다.

축산만을 목적으로 했었다면 나도 이미 倒

主食으로



全仲潤三養食品工業사장은 만성적인 육류파동을 타개하고 식량자급을 위해 과감한 축산진흥책이 긴요하다고 촉구했다.

産했을른지 모른다.

草地造成에 많은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도 축산업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山林法이 워낙 엄격한데다 소관부처간의 정책보조가 안맞아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草地 1백만평 확장허가를 얻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다.

목장주변의 도로, 전기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草地로 개발한 國公有地에 대한 임대료를 6년간 무려33배로 올리는 따위의 정책은 축산진흥 방향과 걸맞지 않는다.

「프랑스」「노르망디」 지역 농가의 경우 한 가구당 대개 심멘탈 30마리를 길러 연간 粗收入 3만달러, 純收入 1만 5천달러를 올리는 것을 직접 가서 본적이 있다.

도시수준을 웃도는 소득이다. 종자개량을 위한 과감한 우량종 도입과 草地 조성에 따른制約이 해소된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全國 山地를 草地化

볏짚과 옥수수대는 사료로서 아주 훌륭하다.

2백만 정보의 山地를 모두 草地로 개발하면 소 6백만 마리를 키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소 보유수는 1백 45만 마리에 불과하다. 肉類와 酪農제품을 自給하자면 매년 3만마리씩 도입하고 3만마리를 증식해도 15년 이 걸려야 한다.

人力과 山野는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다.

山地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산진흥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 위에서만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酪農 농가나 업자에게는 세금이 거의 없다.

牛舍 건축과 草地 조성을 위한 長期低利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물론이다. 酪農제품을 主食으로 보고 重化學工業에 대한 것과 같은 지원시책을 편다면 畜産物 自給은 물론 농가 소득을 늘리고 그 輸出로 貿易收支도 개선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